

# Samhwa & People

vol. 30 Summer 2018





# CON

vol. 30

## S + SAMHWA

- 004 NEWS 삼화페인트 주요 뉴스
- 006 NEW PRODUCT 언더가드 아쿠아 & 스피클
- 008 CSR 부산 호천마을에 차일페인트로 시원한 여름 선물
- 010 FRIENDS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최고를 꿈꾼다, 삼조케미칼
- 014 CIY CAMPAIGN 창원영업소 오피스
- 018 GLOBAL VIEW 삼화페인트 몽골-에라도로-몰디브의 매력에 빠지다
- 020 THE MEAL 설레는 여름휴가를 맞이한 삼화인들의 이야기
- 024 EXCITING CHALLENGE 저대로 물 만났대! 수상스키 & 웨이크보드



# TE



## S + COLOR

- 049 COLOR MAGAZINE
- 050 2018 SUMMER TWO TONE INTERIOR
  - 세로 분할 두 톤 페인팅
  - 가로 분할 두 톤 페인팅
  - 포인트 컬러 페인팅
  - 다양한 아이디어로 벽면 꾸미기
- 054 변화하는 아파트 익스테리어 트렌드
- 056 CULTURECLUB 전시 공연 이벤트 코너
- 057 LETTER'S PAGE 독자 퀴즈 코너



## S + INTERIOR

- 028 OPENSTORY Fill a House with Nature
- 032 INTERVIEW 자연을 담은 프르방스 스타일의 집
- 036 S + INTERIOR
  - Botanical Style
  - Tropical Style
- 044 DIY 마린 콘셉트 우드 트레이 DIY
- 046 ONE POINT Natural Summer Style

# 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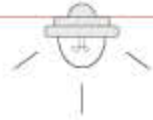


**SAMHWA**

[삼화엔피플] 2018년 여름호 정보간행물(계간) 등록번호 00176 / 발행일 2018년 7월 30일 / 발행인 오진수 / 편집인 김향란 / 발행처 삼화페인트 서울 동구구 동화문로 58(모동 125번지) / 문의 02)765-3641 / 기획·디자인 크비즈 02)227 2-1400

\* 본 정보간행물은 인쇄용이므로 실제 페인트 컬러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컬러는 색전본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 다양한 기업 소식은 삼화페인트 홈페이지(www.spi.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SUMMER  
VOL. 30

글 김현정 재무팀 과장

## 경기도미술관 프랑스 벽화전 <그림이 된 벽> 협찬



삼화페인트는 경기도미술관의 2018년 첫 기획전시인 프랑스 벽화전 <그림이 된 벽> 전시에 페인트를 협찬했다. 경기도미술관과 프랑스 도멘 드 케르케빅 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프랑스 작가들이 페인트를 활용해 미술관 전시장에서 직접 그려낸 벽화를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로 진행됐다.

이번 전시에는 미셸 뒤포르, 수아직 스투크비스, 아노스 베르, 에밀리 사트르, 올리비에 노틀레, 크리스티앙 로피탈, 크리스티앙 자카르, 클레르 콜랭-콜랭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8명의 현대미술가들이 참여해 재능을 빛냈다. 삼화페인트는 전시 협찬사로서 작가들에게 작품 제작에 필요한 프라이머 페인트 아이러크스틀, 경기도미술관 전시공간에는 친환경 페인트 아이생각을 협찬했다. 삼화페인트가 페인트를 협찬한 이번 전시는 그림이 된 벽을 거닐며 색과 이미지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편, 앞서 삼화페인트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과 지역사회 컬러 문화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컬러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고, 미술전시 페인트도 협찬하고 있다.

## 공항소음대책지역 노후주택에 차열페인트 지원

삼화페인트는 폭염을 앞두고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차열페인트를 지원했다. 이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올 여름에는 이 지역 노후주택 주민의 더위 해소를 위해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클루프 캠페인을 7월 26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클루프 캠페인에 쓰인 차열페인트는 삼화페인트 스피클 시리즈로 열차단 효과가 있는 특수 안료를 함유, 벽과 옥상 등에 칠하는 것만으로 여름철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시켜준다.

여름철 태양열을 받아 최대 50~60도까지 올라가는 외벽 온도를 40도까지 낮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 CRRC 및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다. 앞서 삼화페인트는 지난 4월에도 산복 도로에 위치한 부산 호천마을 에너지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차열 페인트 3,400 리터를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제품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회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제7회 컬러 정기 검진 진행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 센터에서는 매년 컬러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진은 안산공장과 공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조색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진결과가 좋은 삼화인에게는 결과에 대한 작은 포상도 주어진다.

이번 정기 검진에는 총 67명이 참여하며 바쁜 업무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컬러 정기검진은 정확도 있는 컬러를 구현하고, 삼화인들을 격려하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메탈릭펄 인테리어 페인트 '컬러데코마블월' 출시

삼화페인트는 차별화된 인테리어 제품 확장을 위해 지난해 바닥용 컬러 데코마블플로어'를 출시한 데 이어 벽면 페인트 '컬러 데코마블월'을 출시했다. 컬러데코마블월은 고급 인테리어 바닥재 컬러 데코마블플로어와 연계해 출시한 벽면용 인테리어 페인트로 수용성 아크릴 에멀전과 메탈릭 펄



입자를 넣어 공간에 화려한 마블 효과를 연출한다. 특히 조명에 따라 반짝이는 고풍택 표면과 화려한 메탈릭 질감은 작업자에 의해 개성 있게 완성된다. 클라우드 펄을 기본으로 어반 그레이, 실버, 블랙홀, 스모그, 브론즈, 오션, 윈터, 파넛, 가든, 베리베리, 애머시스트 등 열두 가지 색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원하는 실내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충족하고 6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다.

## 사후관리 서비스로 T/S 활발히 운영

삼화페인트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후 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삼화페인트는 사후관리 서비스로 A/S 대신 T/S (Technical Service : 기술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는 페인트 시공 과정이나 원료 후 생기는 문제나 문의사항의 대부분이 제품 특성과 시공 현장에 맞게 제대로 시공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는 분석을 토대로 시작했다. 페인트는 목재용, 건축용, 공업용 등 종류에 따라 칠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페인트의 컬러나 기능, 품질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부식이나 오염, 화재 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총 16명이 기술 지원은 물론 페인트 작업을 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 감리 업무까지 지원한다.



## 차량하체 보호 수성 언더코팅 언더가드 아쿠아

큰 마음 먹고 구매한 차, 오래 타고 싶다면 관리는 필수.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부터 소중한 내 차를 지키고 싶은 이들을 위해 삼화페인트가 나섰다. 자동차의 부식을 방지하는 차량 하체 보호 수성 언더코팅 '언더가드 아쿠아(UNDERGUARD AQUA)'로 오래도록 쾌적한 드라이브를 만끽해보자.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가 차량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이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제동장치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도로에 고인 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차량 하부의 부품들이 부식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문제는 단순히 차체 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식으로 약해진 차체가 차량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혹시 모를 충돌 사고를 만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삼화페인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부터 자동차의 부식을 예방하고,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하체 보호 수성 언더코팅 '언더가드 아쿠아'를 출시했다. 언더가드 아쿠아는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 대신 물을 사용하여 작업 시 안전하고 냄새와 분진이 거의 없는 제품이다. 기존 제품들의 단점인 낮은 부착력과 내수성, 건조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식방지·방음·방진 효과가 있는 강력한 코팅막을 제공한다. 사용자 건강의 위해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및 ROHS에 합격했다.

장마철 자동차 부식을 방지하는 언더가드 아쿠아는 신차일 때 도장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여름, 우리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삼화페인트 언더가드 아쿠아로 자동차 부식을 방지해보자.



## 기능성 열반사 차열도료 스피쿨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 선풍기와 에어컨만이 정답인걸까? 지나친 냉방으로 인해 건강과 냉방비가 걱정된다면 삼화페인트의 기능성 열반사 차열도료 '스피쿨(SPICOOOL)'에 주목해보자. 페인팅 한 번으로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열섬 현상을 막는 기능까지 갖춘 제품이다.

여름철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차열(遮熱)도료'가 주목받고 있다. 지표면 복사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열의 반사율을 높여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고 열섬 현상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여름 들, 콘크리트, 철재의 표면 온도는 태양열을 받아 최고 70도 이상 올라간다. 하지만 차열도료가 적용된 표면의 경우 40도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여름철 일사 반사율을 높일수록 열부하는 낮아진다. 삼화페인트 '스피쿨'은 딱 이 용도로 개발됐다. 스피쿨은 열 차단 효과가 있는 특수 안료를 함유, 지붕, 벽면, 시설물, 저장탱크, 적재함 등에 칠하는 것만으로 건물 내부로 열 전달을 막아 냉방에 드는 에너지를 20%가량 절감해준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국 CRRC 및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다. 차열도료는 에너지 절감 외에도 열섬 현상을 막는 효과도 있다. 도심 건물들에 적용할 경우 열섬 발생을 낮추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삼화페인트의 차열도료 스피쿨로 시원하고 쾌적한 실내를 물론, 에너지 절감도 되고, 방수도 되는 세 마리 토끼까지 동시에 잡아보는 건 어떨까? **금 박철희 마켓리더십 과장**

\* CRRC : Cool Roof Rating Council, 에너지 절감형 도료 인증 기관,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적용된 자재의 태양광 반사 및 방사 성능을 시험·평가한다.  
\* 에너지스타 :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컴퓨터를 시작으로 사무기기, 조명, 가전 등 에너지절약제품뿐 아니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건물까지로 확대됐다.





# 올여름 무더위 걱정 없어요~ 부산 호천마을에 차열페인트로 시원한 여름 선물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태양은 높고 기온이 치솟는 이맘 때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기 마련. 하지만 부산 호천마을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여름은 다르다. 삼화페인트가 차열페인트 '스피쿨'로 시원한 여름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삼화페인트가 폭염을 앞두고 '쿨루프(Cool Roof) 캠페인'을 통해 시원한 여름 만들기엔 앞장서고 있다. 날이 심해지는 기후 변화와 열섬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쿨루프 캠페인'은 태양열을 반사하는 성분이 함유된 흰색 차열페인트를 건물의 지붕과 옥상에 시공해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추는 활동을 말한다. 삼화페인트는 이 '쿨루프 캠페인'의 일환으로 환경부 및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기획한 '기후변화적응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해 부산 호천마을에 차열페인트를 지원했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기후변화적응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노후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해주는 프로젝트이다.

**차열페인트 스피쿨로 더욱 시원해진 호천마을**  
삼화페인트는 '기후변화적응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간인 약 48일 동안 호천마을 93가구, 1,800여 평(5,950m<sup>2</sup>) 옥상에 열 차단 효과가 뛰어난 차열페인트 '스피쿨'을 비롯해 총 3,400리터의 페인트를 지원해 주민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했다. 삼화페인트가 지원한 차열페인트 '스피쿨'은 열 차단 효과가 있는 특수 안료를 함유, 옥상 등에 칠하는 것만으로 여름철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시켜준다. 여름철 태양열을 받아 최대 50~60도까지 올라가는 외벽 온도를 40도까지 낮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시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 4월 21일에는 호천마을 문화플랫폼에서 '기후변화적응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류기봉 삼화페인트 전무와 이은희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참석해 친환경마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화페인트와 환경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관계자, 자원봉사원 등이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기후변화 취약주택의 옥상에 열차단 효과가 뛰어난 차열



페인트를 직접 시공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차열페인트 시공에 직접 참여한 류기봉 전무는 "호천마을이 산중턱에 있고 고령인구가 많아 주민들이 여름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스피쿨 시공으로 올해는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삼화페인트는 사람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계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함께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관계자는 "삼화페인트와 함께 협력하며 신속하게 일을 추진한 덕분에 폭염에 힘들어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삼화페인트와 함께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삼화페인트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차열페인트 '스피쿨'을 지원했다. 7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도 추진됐다.

삼화페인트는 날이 심해지는 기후 변화와 열섬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품 개발과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삼화페인트가 만들어갈 더욱 시원하고 쾌적한 미래를 기대해보자. S







## 부부가 함께라면 언제라도 OK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최고를 꿈꾼다

삼/조/케/미/칼

경기도 용인시에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유명한 자동차 보수용 도료 전문 대리점이 있다. 오래되어 색이 일부 바랜 차량도, 어느새 스크래치가 잔뜩 늘어난 차량도 삼화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도료 '카로클'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수를 도와주는 마법 같은 대리점. 이곳의 이름은 바로 삼조케미칼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자리한 삼조케미칼은 수도권에서 유명한 자동차 보수용 도료 전문 대리점이다. 경력 20년차의 페인트 전문가 오재원 대표와 아내 정선양 사장이 운영하는 이곳은 삼화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도료 '카로클'을 활용해 수도권 곳곳에 그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건축용 페인트만이 페인트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는 전자제품, 산업용품에 쓰이는 다양한 페인트가 있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어느 날 갑자기 스크래치가 나는 자동차를 보수하기 위한 페인트도 있습니다. 특히 삼화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도료 '카로클'은 다양한 컬러는 물론, 탁월한 품질로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전문 조색사들의 정확한 조색 시스템

삼조케미칼의 오재원 대표는 20대에 부자재 사업을 시작으로 페인트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자동차 보수용 도료 시장의 성장세를 눈여겨보고, 젊음과 열정을 발판 삼아 시장 선점에

나섰다. "젊음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자본금도 없고 부모님의 도움도 없이 시장을 개척해야 했는데요. 따뜻한 친절은 물론, 용인의 높은 접근성, 부자재 사업을 한 경험,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인프라, 정확한 배송, 미래 전략 등의 강점을 모두 살려 삼조케미칼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삼조케미칼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자리한 데다, 부자재 사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했기에 일반 소비자들과 건축업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그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갔다. 더군다나 다른 대리점과 달리 전문 조색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

전문 조색사들은 삼화페인트의 '카로클'을 활용해 오래되어 일부가 변색된 차량, 스크래치가 잔뜩 난 차량, 컬러가 특이해 유사한 보수용 도료를 찾기 어려운 차량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객들에게 큰 신뢰를 쌓았다. 거리가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서까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였다.





**남편과 아내, 삼화와 삼조 모두의 케미스트리**  
 "당연히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와 직원들이 있었기에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 아내와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삼조케미칼은 수도권에서 유명한 자동차 보수용 도료 대리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오재원 대표는 부부의 사랑과 신뢰, 직원들 간의 찰떡 호흡, 삼조와 삼화의 케미' 또한 삼조케미칼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남편인 오재원 대표는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으로 큰 그림을 잘 설계하는 편이고, 아내인 정선양 사장은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꼼꼼히 잘 챙기는 편이다. 정선양 사장 또한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항상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묵묵히 노력하는 뒷모습이 정말 크고 멋있어 보인답니다."

삼조케미칼은 매주 10여 명의 임직원들과 회의를 열어 소통과 미래 전략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는 것이죠.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는 함께 축하해주는 사업장, 오래도록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재원 대표 부부는 삼화페인트와 삼조케미칼이 오래도록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 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난 삼화페인트의 카로클은 컬러의 정확성, 작업성, 부착성 등 기능과 품질이 매우 우수한 도료입니다. 시장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고, 질 좋은 도료를 납품하여 우수한 작업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료전문기업 삼화페인트와 삼조케미칼이 오래도록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이어가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페인트는 무지개와 같아서 무엇이든 다채롭게 변화시키고 희망차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도전의식, 친절과 정직, 신뢰, 꾸준함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보수용 도료 시장을 개척해온 이들 부부의 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대리점계의 최고로 올라서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행복을 개척해나갈 삼조케미칼의 미래를 기대해보자. S

## PLCK

삼화페인트 자동차 보수용 도료 '카로클'

삼화페인트의 카로클은 컬러의 정확성, 작업성, 부착성이 우수한 자동차 보수용 도료이다. COLOR 제품에는 BASE 제품과 TOP-COAT 제품이 있으며, BASE 제품으로 STARBASE, TOP-COAT 제품으로 STARCOAT를 출시했다. 신속한 컬러 배합 및 인터넷을 통한 DATA BASE를 구축함으로써 사용 고객을 만족시키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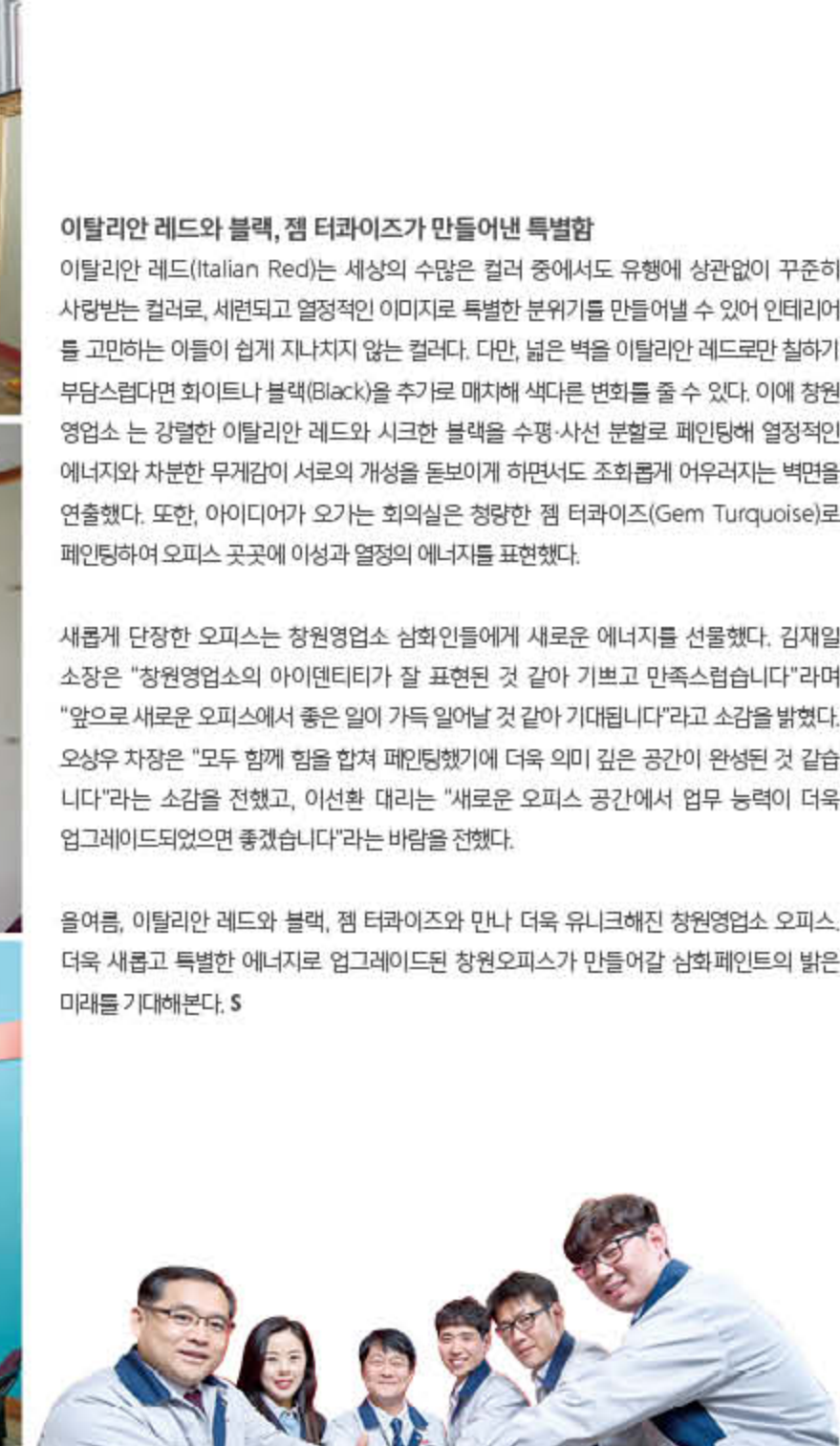
## 이탈리안 레드와 블랙, 젬 터콰이즈가 만든 탁월한 조화

창원영업소 오피스

삼화페인트의 CIY 캠페인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다양한 컬러와 패턴 조합이 눈에 띄는 이번 CIY 캠페인의 주인공은 경상남도 삼화페인트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창원영업소. 강렬한 이탈리안 레드(Italian Red)와 시크한 블랙(Black), 상쾌한 젬 터콰이즈(Gem Turquoise) 컬러와 만나 신선하고 유니크해진 창원영업소 오피스와 만나보자.







연일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 경상남도 제1의 도시 창원시. 오늘날 광역시급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기계-자동차의 중심지인 창원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삼화페인트가 강세를 보이는 곳이란 점이다. 창원영업소는 바로 이 창원시에서 삼화페인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지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업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CIY 캠페인에 도전했다.

### 창원영업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컬러 선정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이 있죠. 냉철한 이성과 멈추지 않는 열정을 원동력으로 삼화페인트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창원영업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창원영업소의 꿈과 의지를 담은 오피스 공간을 CIY 캠페인을 통해 만들고자 합니다."

창원영업소 김재일 소장과 삼화인들이 선정한 오피스의 아이덴티티는 '냉철한 이성과 멈추지 않는 열정이 살아있는 공간'. 이성과 열정을 표현할 메인 컬러로는 고심 끝에 강렬한 이탈리아 레드(Italian Red)와 차분한 블랙(Black), 청량한 젬 터콰이즈(Gem Turquoise)를 최종 선택했다.

본격적인 페인팅은 삼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김재일 소장과 오상우 차장은 본인의 집을 직접 페인팅할 정도의 실력자인 동시에 페인트 시공 후 완성도를 체크하는 감리 출신의 경력자로 내공을 마음껏 발휘했다. 여기에 막내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 주겠다는 이선환 대리까지 합세해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법같이 화려한 컬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 이탈리안 레드와 블랙, 젬 터콰이즈가 만들어낸 특별함

이탈리안 레드(Italian Red)는 세상의 수많은 컬러 중에서도 유행에 상관없이 꾸준히 사랑받는 컬러로, 세련되고 열정적인 이미지로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인테리어를 고민하는 이들이 쉽게 지나치지 않는 컬러다. 다만, 넓은 벽을 이탈리아 레드로만 칠하기 부담스럽다면 화이트나 블랙(Black)을 추가로 매치해 색다른 변화를 줄 수 있다. 이에 창원영업소는 강렬한 이탈리아 레드와 시크한 블랙을 수평·사선 분할로 페인팅해 열정적인 에너지와 차분한 무게감이 서로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벽면을 연출했다. 또한, 아이디어가 오가는 회의실은 청량한 젬 터콰이즈(Gem Turquoise)로 페인팅하여 오피스 곳곳에 이성과 열정의 에너지를 표현했다.

새롭게 단장한 오피스는 창원영업소 삼화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선물했다. 김재일 소장은 "창원영업소의 아이덴티티가 잘 표현된 것 같아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오피스에서 좋은 일이 가득 일어날 것 같아 기대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상우 차장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페인팅했기에 더욱 의미 깊은 공간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고, 이선환 대리는 "새로운 오피스 공간에서 업무 능력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올여름, 이탈리아 레드와 블랙, 젬 터콰이즈와 만나 더욱 유니크해진 창원영업소 오피스. 더욱 새롭고 특별한 에너지로 업그레이드된 창원오피스가 만들어갈 삼화페인트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S

### CIY CAMPAIGN 오픈 - 삼화페인트와 함께 꿈꿔왔던 페인팅에 도전하세요!

삼화페인트의 'CIY(Color It Yourself) CAMPAIGN'은 우리 회사의 부서, 영업소와 대리점 등을 방문해 페인트를 통한 인테리어 변신을 도와주는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컬러는 우리의 생활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컬러를 어떤 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직장 내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는 부서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컬러 페인팅으로 활기찬 2018년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컬러디자인센터 이미지 대리(speople@samhwa.com)





## 삼화페인트, 몽골·에콰도르· 몰디브의 매력에 빠지다

삼화페인트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거대 시장은 물론,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신흥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시아의 몽골과 몰디브,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가 대표적이다.



전 세계인의 환호 속에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마무리됐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우승 후보들이 예상보다 일찍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작지만 강한 '강소' 팀들이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은 강소 팀의 '전력' 그 자체에도 주목했지만 출신 국가의 '인구'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적은 인구에서 선출한 선수들이 어떻게 이미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준우승을 일구어낸 크로아티아는 416만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이다. 거의 모든 국가가 '강호'라고 부르는 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5,100만 명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5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가 축구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니다. 작은 나라 또한 얼마든지 축구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준다. 거대 국가가 세계 시장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 인구 규모가 작은 시장 또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 재회를 수출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인구가 적다면, 오히려 이는 긍정적인 기회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구가 적고 시장이 작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사업 기회를 만들고 성장시켰다면, 이는 분명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작지만 탄탄한 몽골·에콰도르·몰디브 시장의 매력 이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 삼화페인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삼화페인트의 주요 해외 고객사 중 대표적인 3곳은 바로 몽골, 에콰도르, 몰디브이다. 몽골은 부산 인구인 354만 명에 못 미치는 312만 명, 에콰도르는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1,686만 명, 마지막으로 몰디브는 서울시 노원구의 55만 명보다 적은 44만 명 수준이다. 보통의 경우 인구가 적은 만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비재, 생산재의 양은 적다. 거기에 이미 내수를 책임지고 있는 제조업체도 탄탄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재회를 수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삼화페인트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몽골·에콰도르·몰디브 시장 개척에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세계 시장에는 유수의 글로벌 도료업체가 즐비하다. 월드컵처럼 4년마다 열리는 대회가 아닌, 1년 내내 경쟁을 해야 하는 치열한 세계 시장이 바로 페인트 시장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우리 삼화페인트 또한 그렇다. 다양한 컬러와 우수한 품질로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삼화페인트의 신흥시장 선전을 기원한다. S





왼쪽 왼쪽부터 김효정 과장, 허현아 대리, 정다울 사원, 임소희 사원  
아랫줄 왼쪽부터 박미희 차장, 이상희 부장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 설레는 여름휴가를 맞이한 삼화인들의 이야기

최고 온도를 경신하던 화창한 수요일 오후, 플라스틱소재연구그룹 이상희 부장과 박미희 차장, 컬러디자인 센터 김효정 과장, TS팀 임소희 사원, 에스엠투네트웍스 허현아 대리와 정다울 사원이 논현동의 한 레스토랑에 모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즐거운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다는 것! 맛있는 식사와 행복한 웃음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여름휴가 이야기가 함께했던 시간을 공유한다.



### 내 추억 속 여행지

**Q** 직장인 대부분이 여름휴가 때 여행을 계획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이상희 부장** 전 푸켓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첫 장기 여행이었는데 20대처럼 즐기고 돌아왔거든요. 정다울 사원 맞, 저랑 비슷하시네요. 제 인생 휴가지는 발리였어요! 리조트나 호텔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휴가를 즐기에는 딱 맞더라고요. 오후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 맛집 가서 배불리 먹고, 바로 해양 액티비티 즐기고... 정말 원 없이 놀다 왔던 거 같아요.

**임소희 사원** 휴가지가 그런 맛이 있죠. 저도 휴양과 액티비티가 공존하는 코사무이라고 하는 태국 섬으로 떠났던 여행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당시 풀문 파티 기간이라 일탈을 꿈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축제 같았거든요. 저도 그 분위기에 빠져서 일상을 잊고 신나게 즐겼던 것 같아요.

**허현아 대리** 일상에 지친 피로를 풀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 그런지 휴가지 추억이 많네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해요. 지난 해 겨울에 친구들과 괄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저나 친구들 모두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눈만 뜨면 바다로 나갔거든요. 프라이빗 비치에서 석양을 보며 수영을 했던 그날들을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김효정 과장** 휴가지도 좋지만 고생한 추억이 있는 여행지도 좋은 것 같아요. 전 대학 때 친구와 무전여행에 가까운 제주도 여행을 했던 것이 15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거든요. 일주일 내내 제주도 곳곳을 버스를 타고 돌아다녔죠. 재미있는 추억도 있어요. 어느 날은 승객이 없는 마을버스에 타면서 목적지를 말했더니 버스 노선이 아닌데도 마치 택시처럼 그곳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박미희 차장** 와. 그거 정말 신기한 추억인데요? 지금은 불가능하겠죠? 해외도 좋지만 제주도 같은 국내 여행지도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전 여수로 여행 떠난 적이 있는데, 바다 바로 옆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며 지나가는 배들을 보다가 순간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에 빠졌었어요.

**나의 여름휴가 꿀팁!**

**Q**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름휴가 꿀팁을 삼회사원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임소희 사원** 여행을 가면 그 지역 로컬 푸드를 꼭 먹어보는 편이에요. 거기에 더해 한군데서 배불리 먹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음식을 먹고요. 그 지역을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느끼고 싶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름휴가 때 계획한 것을 모두 실행하겠다며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너무 무리하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김효정 과장** 맞아요. 여름휴가라는 한정된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해보겠다며 빡빡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여행 일정을 세울 때는 좀 여유 있게 잡아요. 그리고 중간에 아무 계획 없는 시간도 넣어놓고요. 새로운 곳에 가면 계획하지 않았던 좋은 곳들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장소와 기회를 즐기다 보면, 나만의 특별한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박미희 차장** 맞아요. 여행을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여행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여행지에서 계획한 날보다 하루를 더 머물기도 해요. 하루를 더 즐기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여행자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허현아 대리** 모두가 다 여름휴가 때 여행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서 큰 대야에 얼음 넣고 발을 담가 보세요. 뇌까지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름휴가 기간에 가질 수 있는 모미죠.  
**이상희 부장** 맞아요. 꼭 여행을 갈 필요는 없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에 앉아서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일상 탈출을 느낄 수 있어요.  
**정다울 사원** 그럼 저는 집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들을 위해 맛집을 찾는 꿀팁을 공유해 드릴게요. 제 업무가 주로 소셜미디어 분석이다 보니, 업무 스킬을 이용한 맛집 찾기인데요. 네이버에 맛집을 검색할 때 '재방문', '인생맛집' 등 블로거들이 진짜 맛있는 집에 대한 후기를 쓸 때 넣는 단어들을 함께 넣어 검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해시태그 '#강남역맛집'이라고 검색하면 그 해시태그가 걸린 먹음직스러운 사진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중에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골라 위치 태그를 보고 찾아가는 거죠.  
**이상희 부장**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지는 자신만의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죠. 당장 여기 모인 우리만 해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중요한 건 즐길 때 확실하게 즐기는 것, 그게 정말 보람찬 여름휴가를 즐기는 법이라 생각해요. S



**나에게 여름휴가란?**



**이상희**  
 플라스틱재연구그룹 EMC디자인파트 부장

**특별한 선물**

올여름 서울 근교 계곡으로 힐링 여행을 준비 중이라는 이상희 부장.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자녀 때문에 올해는 먼 곳으로 떠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라스베이거스로의 여행을 꿈꾼다는 그녀다.



**박미희**  
 플라스틱재연구그룹 EMC디자인파트 차장

**일 년에 한번 받는 생일 선물**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오빠네 가족들과 서울 구경 및 경주 여행 계획 중이라는 박미희 차장. 올해 여름휴가의 목표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조카들에게 한국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김효정**  
 컬러디자인센터 과장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는 일시 정지 버튼**

인생에서 두 번째 서핑 시도를 위해 부산으로 떠난다는 김효정 과장. 재작년 처음 서핑을 배우면서 온갖 고생을 했지만, 여름에는 자꾸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올해 재도전을 계획했다.



**허현아**  
 에스엠투네트웍스 경영지원팀 대리

**노는 게 제일 좋아~**

남편과 여름휴가 일정을 맞추지 못해 홀로 부산으로 떠나게 됐다는 허현아 대리. 고향 부산에서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자주 못 만났던 친구들과 화포를 풀며 즐겁게 지낼 예정이다.



**정다울**  
 에스엠투네트웍스 마케팅전략팀 사원

**맞으면 갑자기 몸이 가벼워 지는 링거**

고향인 부산으로 귀향해 그리웠던 가족들을 만나 힐링하고 돌아올 거라는 정다울 사원. 차곡차곡 쌓아온 부산 맛집 리스트들을 참고해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가족들 품에서 쉬다 오는 것이 그녀의 이번 여름휴가 목표다.



**임소희**  
 TS팀 사원

**나에게 보상은 최고의 이벤트**

가족 단합을 위한 휴가를 계획 중인 임소희 사원은 키즈 펜션을 예약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고 그사이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거기에 술 한 잔이 함께한다면 최고의 휴가가 될 것 같다고.





제대로 물 만났다!  
물 위를 달리는 짜릿한 스릴

# 수상스키 & 웨이크보드



무더운 여름,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가시는 듯한 풍경이 있다. 하얗게 물결치는 한강이 그렇고, 수면 위로 질주하는 수상스키 & 웨이크보드가 그렇다. 단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해보는 기분은 더 짜릿하지 않을까? 올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체험을 찾아 삼화페인트 연구혁신그룹이 한강 수상스키 & 웨이크보드에 도전했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의 한강 리버시티 수상스키 & 웨이크보드 체험장.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즐기러온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이곳에 삼화페인트 연구혁신그룹 윤대봉 책임연구원과 김필영 책임연구원, 이은균 대리과 이재민 주임연구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무려 20여 년 전 수상스키를 타봤다는 김필영 책임연구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첫 도전인 셈이지만, 삼화인들은 긴장감보다는 설렘과 기대로 들뜬 표정이었다.



## 수상스키 & 웨이크보드 배워보니 어땠나요?



### 표정만큼은 모두 프로선수급 이상

이날 체험은 지상에서 먼저 시작됐다. 간단히 기본 동작을 배우며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냈다. 넘어지지 않고 멋지게 서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기마자세가 필수이다. 보트에 몸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팔은 앞으로 쭉 뻗고, 거센 물살을 버텨낸다는 생각으로 허벅지에 힘을 줘야 한다. 곧잘 따라 해내는 삼화인들의 모습에 강사가 엄지를 치켜세웠다.

지상에서의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수상스킴과 웨이크보드팀으로 나눠 실전에 들어갔다. 속도에 집중해 스티를 만끽하는 게 수상스키의 매력이라면, 웨이크보드는 다양한 기술을 터득할수록 묘기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김필영 책임연구원과 이은균 대리는 보드보다 쉬워 보인다는 수상스키를, 스노보드 경험자인 윤대봉 책임연구원과 이재민 주임연구원은 웨이크보드에 도전했다.

"스노보드는 많이 타봤지만, 웨이크보드는 처음인데요. 바쁜 직장생활에 활력소가 될 멋진 취미 하나 생기면 좋겠습니다(윤대봉 책임연구원)", "처음이라 살짝 긴장도 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이재민 주임연구원)."

초보자는 바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탈 수 없으니 보트에 연결된 붓을 잡고 시뮬레이션하는 연습이 먼저 진행됐다. 그렇게 감을 익혀야 진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탈 수 있다. "생각보다 물이 엄청 차갑게 느껴지고, 몸의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이은균 대리)", "전신의 근육을 다 쓰게 되니 짧은 시간 소모하는 운동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김필영 책임연구원)."

### 한강을 무대로 짜릿한 스티를 만끽

이제는 진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탈 차례가 왔다. 보트를 타고 한강 중앙에 다다르면 배와 이어진 줄을 잡고 달리게 된다. 첫 타자로 나선 김필영 책임연구원. 처음에는 살짝 삐끗하나 싶더니 이내 감을 잡고 시원하게 성공했다. 김필영 책임연구원은 나중에 한남 대교를 넘어 반포대교까지 다녀오는 활약을 펼쳤다. "어려웠던 처음이 지나가니 탁 트인 한강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정말 아름다웠고, 몸도 마음도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이어진 두 번째 도전자는 이은균 대리. 거세게 흐르는 물살 탓에 몸이 자꾸만 가라앉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곳곳이 몸을 일으켜세우는 모습에 삼화인 모두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재미 있어 보였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어요."

윤대봉 책임연구원과 이재민 주임연구원이 응원 속에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처음에는 쉽게 일어서는 것 같더니 그대로 가라앉는 윤대봉 책임연구원. 심기일전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도전해서 결과는 멋지게 성공! 마침내 전문 웨이크보더의 자태를 뽐내며 물 위를 마음껏 달렸다. "직접 타보니 스노보드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이 있네요.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물 위를 달릴 때의 짜릿한 성취감은 중독성 100%입니다." 이재민 주임연구원 또한 막내의 저력을 발휘해 웨이크보드에 도전, 준수한 실력을 선보였다. 물살을 타던 중 다리에 쥐가 나가까지 했지만 마지막까지 부상투혼을 발휘했다.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근육경련이 오기도 쉬웠던 거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날 이들의 더위와의 한판 승부는 그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건강과 힐링이라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의 매력에 푹 빠진 삼화인들. 수면 위를 시원스레 질주하는 수상스키 & 웨이크보드처럼 이들의 앞날도 탄탄대로만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S



윤대봉 책임연구원



김필영 책임연구원



이재민 주임연구원



이은균 대리

한강에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정말 상쾌한 것 같아요. 특히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강물과 함께 한다면 원만한 더위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워낙 다이내믹한 운동을 좋아해서 스노보드나 MTB를 즐기고 있는데요. 액티비티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 드리고 싶네요.

'수상스키로 인생샷 한번 남겨 보겠다'는 각오로 도전했는데요. 물 위에 뜨기 직전까지의 고비를 넘기면 정말 상쾌한 것 같아요. 특히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강물과 함께 한다면 원만한 더위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워낙 다이내믹한 운동을 좋아해서 스노보드나 MTB를 즐기고 있는데요. 액티비티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라고 추천 드리고 싶네요.

더운 여름날 차가운 물이 주는 시원함으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 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몇 번의 연습으로 쉽게 즐길 수 있었던 수상 레포츠인데요. 조금만 더 연습해서 자신감이 붙는다면, 웨이크보드의 속도감이 주는 짜릿함을 더욱 만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삼화인 여러분도 다 함께 도전해봅시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요. 역시나 쉽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박수가 절로 나오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 액티비티한 레포츠를 즐기지 못했던 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어도 코로 들어오는 강물의 차가움도 느껴보고 두 발로 서서 물 위를 누비는 놀라운 성취감도 맛보세요!



### EXCITING CHALLENGE에 도전하세요!

우리 회사 부서·동호회 사무들과 함께 체험하고 싶은 원데이 클래스가 있나요? 지금 바로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원데이 클래스 체험을 지원해드립니다.

참여 방법 원하는 원데이 클래스와 사연을 <people@samhwa.com>로 보내주세요.

참여 인원 신청 부서·동호회 사무 4~6명



## SUMMER COOL

### Fill a House with Nature

유행은 들고 돌아 결국 자연으로 회귀한다. 다만 자연에 어떤 스타일과 개성을 더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뜨거운 여름, 강렬한 태양빛과 그 열기를 잠시나마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마저도 공간의 오브제가 되는 내추럴 스타일. 바쁜 일상 속 한 줌의 자연이 주는 평온한 공간에서 심과 여유가 주는 행복을 누리보자.





## 자연의 컬러와 오브제를 담은 시원한 휴식 같은 공간

# NATURAL STYLE

우리는 자연을 갈망하지만, 자연은 도시에서 멀어져가는 현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곳곳에서는 자연과 상생하려는 아이디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연주의를 콘셉트로 한 소품을 비롯해 내추럴 인테리어 스타일까지 말이다.



###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 내추럴 스타일

꾸미지 않은 소박한 삶이 주는 분위기와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추럴 스타일은 19세기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물질문명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자연이 동경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 소박함을 찾게 되면서 내추럴 스타일은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기계화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 넣기 위한 소재로 돌, 들꽃, 나무 등이 사용되며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가 돌고 돌아 결국 내추럴로 회귀하는 것도 같은 이유. 자연을 갈망하지만 도시가 발전할수록 자연은 점점 멀어지는 현실에서 자연과 상생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추럴 인테리어의 기본은 '자연'. 자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재인 나무의 브라운과 자연의 대표적인 컬러인 그린 등 내추럴 인테리어는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느낌의 색상을 적용한다. 바다라고 하면 흔히들 블루 컬러를 떠올리지만, 내추럴 인테리어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의 거품색까지도 인테리어에 적용할 만큼 내추럴 인테리어에 적용되는 색상은 디테일하다. 아울러 소재가 주는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투박한 느낌이 들지만 동시에 편안하고 소박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 생동감과 자유로움을 더한 내추럴 스타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은 내추럴 인테리어에 트로피컬, 보타닉, 캐주얼의 생동감과 자유로움을 더하면 무더운 여름, 집 안을 휴양지와 같이 시원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

생동감이 넘치는 트로피컬 컬러는 블루와 그린 이외에 레드와 옐로우처럼 선명한 원색, 베이지와 브라운 등이 해당되며 각각의 컬러는 자연을 상징한다. 가령 블루는 맑은 하늘, 레드 건조한 흙, 옐로우는 햇빛, 베이지는 해변, 브라운은 나무를 의미한다. 트로피컬 컬러는 색감 자체가 강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단색만으로도 인테리어 효과가 크다. 단색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식물의 꽃, 잎, 열매를 모티프로 활용하는 보타니컬 패턴과 조합해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꾸며보자. 커다란 야자수 잎사귀나 화려한 꽃,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이 그려진 태피스트리나 패브릭 액자를 벽면에 내려뜨리는 것만으로 보타니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내추럴의 밝은 느낌을 강조해 릴렉스한 공간으로 연출하려면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함을 보여주는 캐주얼 스타일로 역동적이면서도 편안함이 깃든 공간을 연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연을 나의 공간에, 나의 삶에 끌어들이는 자연을 담은 인테리어는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휴식 같은 공간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여름 낙원을 연상하는 휴양지로 시원한 일상을 선물해줄 것이다. S



## 전남 구례 치휴재 자연을 담은 프로방스 스타일의 집

창밖으로 지리산이 보이고, 멀리 섬진강이 흐르는 자연 속의 집은 남성일 교수와 아내가 함께 인생2막을 열어갈 보금자리다. 삼화페인트의 컬러 컨설팅으로 자연의 컬러를 담아낸 집에서는 부부의 소박한 일상이 더욱 행복하게 피어난다.



"나중에 은퇴할 때가 온다면, 지리산이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이룬 셈이죠."

남성일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전라남도 구례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지리산을 50번이나 종주할 정도로 산을 좋아한다는 그는 자연과 상생하며 살아갈 이곳에서의 인생2막이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오봉산, 뒤로는 지리산이 보이고 멀리 섬진강이 흐르는 이 집은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좋은 자리에 해당하죠. 직접 건축학을 공부해 골격을 세우고,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 센터와 함께 페인팅한 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 자연과 함께 쉬어가는 곳 '치휴재'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치휴재'라는 이름을 붙였다. 쉼(休)이 쉬다(休) 간 곳이란 뜻으로, 치유하고 휴식하는 공간이란 의미로도 통한다. 남 교수는 직접 건축학을

공부해 치휴재의 골격을 쌓았다. 도면을 설계하고 수정하기를 수차례, 나중에는 지붕에 6개의 박공을 넣고 각도를 조정할 정도로 건축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다. 북쪽은 단열을 위해 이중창을 쓰고, 해가 드는 남쪽은 격자로 창을 내어 미관에 신경을 썼다. 그렇게 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집을 만들어갔다.

본격적인 컬러 페인팅 단계에서는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 센터의 활약이 있었다. "막상 집의 컬러를 선정하려 하니,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개별 컬러 선정은 물론, 컬러 간 조화를 계획하는 일은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컬러디자인 센터는 부부와 긴밀한 상의를 거쳐 '자연'을 모티브로 '내추럴 프로방스 스타일'을 기획해냈다. 나무와 돌 등 자연 소재와 부드러운 자연의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내추럴 프로방스 스타일이 자연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가꾸며 살아갈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 여기에 기존 프로방스 스타일의 차분하고 서정적인 느낌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모던한 컬러감을 더함으로써 더욱 유니크한 프로방스 스타일 인테리어를 계획했다.

주요 제품과 컬러로는 건물 외부에 '수성 오버코트 선댄스 옐로우(Sundance), 스노우 화이트(Snow white)를 사용하고, 내부에 '아이릭스 에그셸 핑키 샌드(Pinky Sand), 아보카도 그린(Avocado Green), 블루 아이리스(Blue Iris) 등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컬러의 채도를 동일해 조화로우며 부여하고, 포인트 벽을 적극 활용해 무드를 세심하게 다듬었다. "역시 컬러 전문가의 컨설팅은 달랐습니다. 보면 볼수록 컬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었고, 전체적인 조화로우며 또한 뛰어나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컬러로 더욱 화사하게 피어난 공간

"어머~ 저 집 정말 예쁘다!" 인근 주민들이 볼 때마다 감탄을 터뜨리곤 한다는 치후재의 외관 컬러는 선댄스 옐로우(Sundance), 스노우 화이트(Snow white)의 조합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컬러는 밝고 생동감 넘치는 선댄스 옐로우(Sundance). 남 교수와 아내는 이 색이 병아리 같이 사랑스럽다 하여 치후재를 '병아리집'으로도 부른다고 했다.

단정하게 정리된 돌계단을 따라 치후재의 현관문을 열면 핑키 샌드(Pinky Sand)로 페인팅된 벽이 방문객들을 환대한다.

밝고 화사한 컬러의 이미지는 보는 이의 마음을 절로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곧이어 마주하는 복도는 아보카도 그린(Avocado Green) 컬러다. 희망을 상징하는 새싹과도 같은 컬러의 흐름은 주방까지 이어져 보는 이의 시선을 붙든다. 물이 자주 튀는 싱크대 주변부에는 스페인풍의 타일을 덧대 실용성과 재미를 더했다. 창밖으로는 지리산 노고단의 장엄한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가장 넓은 공간인 거실은 싱그러운 보틀 그린(Bottle Green) 컬러로 꾸몄다. 무럭무럭 자라난 열대의 초목과도 같은 선명한 컬러는 보는 이에게 강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전해준다. 격자로 크게 낸 창밖으로는 오봉산의 크고 장대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남성일 교수 본인의 방은 깔끔한 화이트로 시공했고, 아내의 방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두 계열 컬러인 주피터 그린(Jupiter Green)으로 포인트 벽을 꾸몄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청량 오봉산 풍경 또한 일품이다. 또 다른 방은 하늘과 바다를 닮은 블루 아이리스(Blue Iris)로 페인팅했다.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공간에는 우드 톤의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해 편안함을 더했다.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경치를 즐기기에 좋은 공간이다. 또, 거실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조그마한 다락방이 나온다. 언젠가 만날 손자 손녀들을 위해 꾸몄다는 다락방은 플라스틱 핑크(Plastic Pink)와 에덴 그린(Eden Green)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나라 같은 설렘과 즐거움을 선물해준다.

### 색채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업, 삼화페인트

'내추럴 프로방스 스타일'이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다양한 컬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 치후재. 남성일 교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컬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으며, 삼화페인트가 일반적인 페인트 회사가 아닌, 페인트를 통해 색채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성 오버코트와 아이릭스 에그셸은 냄새도 적게 나고 친환경적인 데다 컬러까지 다양하고 아름다워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도장으로 페인팅을 했는데, 광택이 은은하게 나며 시선을 사로잡아 인테리어 효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삼화페인트와 함께 한층 더 자연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치후재. "자연 속에서 새롭게 책을 집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에 남성일 교수는 "이제는 자연으로 왔으니, 종이랑 책과는 조금 멀어지렵니다"라며 웃음지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조경'에 관심을 갖고 관련 서적들을 탐독 중이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다 살아 있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조경과 어우러져 더욱 특별해질 치후재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오래도록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2막을 열어가고 싶다는 남성일 교수. 그의 꿈을 삼화페인트가 응원해준다. S

### 외부 수성 오버코트



### 내부 아이릭스







# Botanical



보태니컬 인테리어에서 식물을 담은 컬러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깔끔한 화이트와 싱그러운 그린 컬러의 매치는 산뜻하고 시원한 느낌을 자아낸다. 생기 가득한 식물을 곳곳에 배치하고, 벽면에 정교한 꽃과 나뭇잎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면 멋진 보태니컬 스타일이 탄생한다. 보태니컬 스타일의 가장 큰 매력은 바쁜 삶 속에서 자연의 여유로움과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편안함을 준다는 것이다.







PIQUANT YELLOW  
SH S 0540-G80Y



PROCESS GREEN  
SH S 2050-B80G



ICE CUBE  
SH S 1005-B50G



CHARMING METALIC  
GOLD





트로피컬은 열대기후에서 잘 자라는 꽃과 나무, 과일 등을 모티브로 한 인테리어를 말한다. 선명한 이국적인 옐로우, 핑크, 블루 등의 컬러가 주를 이루며, 이국적인 식물과 열대과일을 활용한 소품이 눈에 띄기도 한다. 트로피컬 인테리어는 실제 휴양지에 가지 않더라도 태양이 내리쬐고 산호초가 보이는 맑은 바다, 야자수가 있는 휴양지를 연상시켜 그곳에 가있는 듯한 이국적이고 청량한 느낌을 전해준다.

# Tropical



- RAIN SHIMMER  
SH S 0505-G10Y
- GOLDEN GLOW  
SH S 1060-Y
- BLUEBIRD  
SH S 2060-B
- BERMUDA BLUE  
SH S 3050-B2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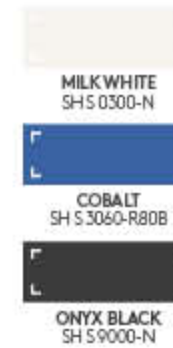
- OCEAN AIR  
SH S 1005-B
- PASTEL PINK  
SH S 0520-R20B
- SUNRAYS  
SH S 0550-Y10R
- BLISS BLUE  
SH S 1040-B20G
- LAGUNA BLUE  
SH S 2050-R90B





## 집 안에 휴양지를 들이다 마린 콘셉트 우드 트레이 DIY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한여름이 오면 실내 또한 뜨거운 공기로 답답해지기 마련. 그럴 때는 시원한 바닷가 휴양지를 떠올리게 하는 마린 콘셉트 우드 트레이로 공간의 분위기를 전환해보자. 쾌청한 날의 흰 구름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담은 화이트와 우드가 어우러져 여름맞이 DIY 연출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HOW TO \_ 1 깔끔한 페인팅을 위해 사포로 표면을 다듬는 샌딩 작업을 먼저 해준다. 2 마린 콘셉트를 상징하는 화이트, 블루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들기 위해 '아이릭스 에그셀 밀크 화이트(Milk White)'를 2회 페인팅하여 밑바탕을 만들어준다. 3 완전히 건조된 표면에 마스킹테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붙여 스트라이프 패턴을 만든 뒤 '아이릭스 에그셀 코발트(Cobalt)'를 페인팅한다. 이후 반건조 상태일 때 마스킹테이프를 떼어낸다. 4 스텐실 도안을 활용해 피날레를 장식할 '닻' 모양을 포인트로 넣어준다. 스텐실 작업을 할 때에는 스텐실 전용 브러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바니시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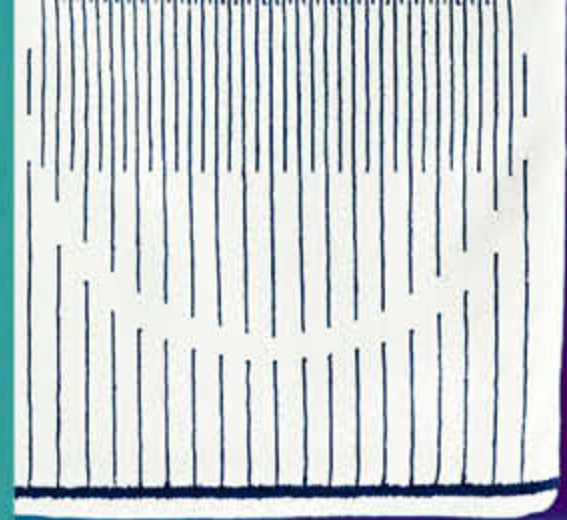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우드 트레이가 시원한 바닷가 휴양지를 연상시키는 마린 콘셉트 우드 트레이로 변신했다. 보는 이의 기분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마린 콘셉트 우드 트레이와 함께 올 여름을 청량하게 만들어보자!



# Natural Summer Style

뜨겁고 강렬하면서도 청량하고 시원한 인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내추럴 뱀머 스타일의 매력.

1 에밀리 콘솔은 미혼알앤 2 두 분 화병은 이노에사 3 아자수 캔들 스틱은 가시알렉시스 4 산호 모양 촛대 자라홀 5 도자기 디 컨테이너는 태오희 6 원목 한울 스완드는 배종도심비 7 풍락 오브제 자라홀 8 이파리 모양 트레이는 자라홀 9 스트라이프 패턴 합금 태오희 10 케이크 스완드는 리비에라에종 11 콜로거 오브제는 안종영이 12 서지형 문양을 새긴 베이스는 태오희 13 스트라이프 패턴 합금 태오희 14 레이스 라이스 굽은 태오희 15 뿔뿔 화병은 안종영이 16 캔들 스완드는 배종도심비 17 리프채그 패턴 도자기는 태오희 18 모래시계는 가시알렉시스 19 중국풍 스완드 개체 20 볼트 라의 무늬는 합엔스타일 21 러스틱한 라탄 트렁크는 리비에라에종



1 태픽스트리 걸 러그는 세그먼트 2 타이틀 조형은 리비에라에종 3 도자 캔들 홀더는 윤현앤즈 4,6 라탄 트렁크는 리비에라에종 5 흰색 랜턴은 리비에라에종 7 해변가를 포착한 사진 작품은 옐로우코너 8 우리 화병은 몰테니&C 9,18 사이드 테이블은 윤현앤즈 10 글레이즈 밝은 보컨셉 11 에스프레소 간 세트는 이도앤즈 12 유니버셜 트레이 세트는 빌라트브 13 라탄 트레이는 NNN 14 삼나무로 만든 테이블은 에이스에비뉴 15,16,20 리넨 소재의 방석은 TWL숍 17 황마를 엮어 만든 바스킷은 이도앤즈 19 민트색 수제 러그는 마이일레



Maison



1 실크프린트 벽면은 가사일렉시스 2 풍화 모형은 연꽃대만림 제품으로 에이치픽스 3 안체어 레나 Rena는 어덜  
4,5 유리병과 컵은 오펜하이 제품으로 아노메탁 6 라우 사이드 테이블은 모로소 7 플라 세가 나무에 앉아 있는  
모양의 화분은 토요 8 플랜트 스탠드는 필리핀 제품으로 정복랑 9 풍화 화사인 표트는 필리핀 제품으로 정복랑 10  
커다란 유리 화분은 하우스라벨 11 열대우림의 식물들 표현한 페프릭은 예원SID 12 식물 모형인 독특한 플러어  
조명은 르보에



# Color Magazine vol.33

## 2018 SUMMER Two Tone Interior Color package

벽면을 페인팅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도 컬러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많이 경험해봤을 것이다. 화사한 컬러가 좋지만 어두운 컬러도 한번쯤 시도하고 싶어진다. 무난한 컬러가 좋을 것 같지만 개성있는 컬러도 욕심이 난다. 단 하나의 컬러만 선택하기 어렵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보자.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투톤 컬러 페인팅으로 데커레이션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팀을 제안한다.





Two Tone  
Interior Color  
package

## 한 공간을 다른 공간처럼 인테리어 컬러 패키지

### 세로 분할 투 톤 페인팅

벽면의 일부만 페인팅하거나, 한 벽면에 서로 다른 컬러들을 페인팅해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화이트와 유색 컬러를 가로 또는 세로로 분할해 페인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세로 분할의 경우, 컬러 콘트라스트가 강한 컬러들로 배색하면 공간을 분할하는 효과를 가진다. 화이트 존에는 식탁을, 블랙 존에는 콘솔과 소파를 놓으면 마치 2개의 다른 공간을 넘나드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MILK WHITE  
SH S 0300-N



NIMBUS GRAY  
SH S 8000-N

### 가로 분할 투 톤 페인팅

가로 분할의 경우, 대체로 2개 컬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콘트라스트가 강한 컬러의 조합은 역동적인 분위기를, 톤이 유사한 컬러의 조합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전체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아래 컬러가 위 컬러보다 진한 것이 좋다. 아래 이미지의 코스탈 미스트(Coastal Mist) 컬러와 라이트 모카 브라운(Light Mocha Brown) 컬러는 전체적으로 단정하면서도 밝은 느낌을 준다. 이를 배경으로 다크 컬러의 가구와 패브릭이 모던한 감성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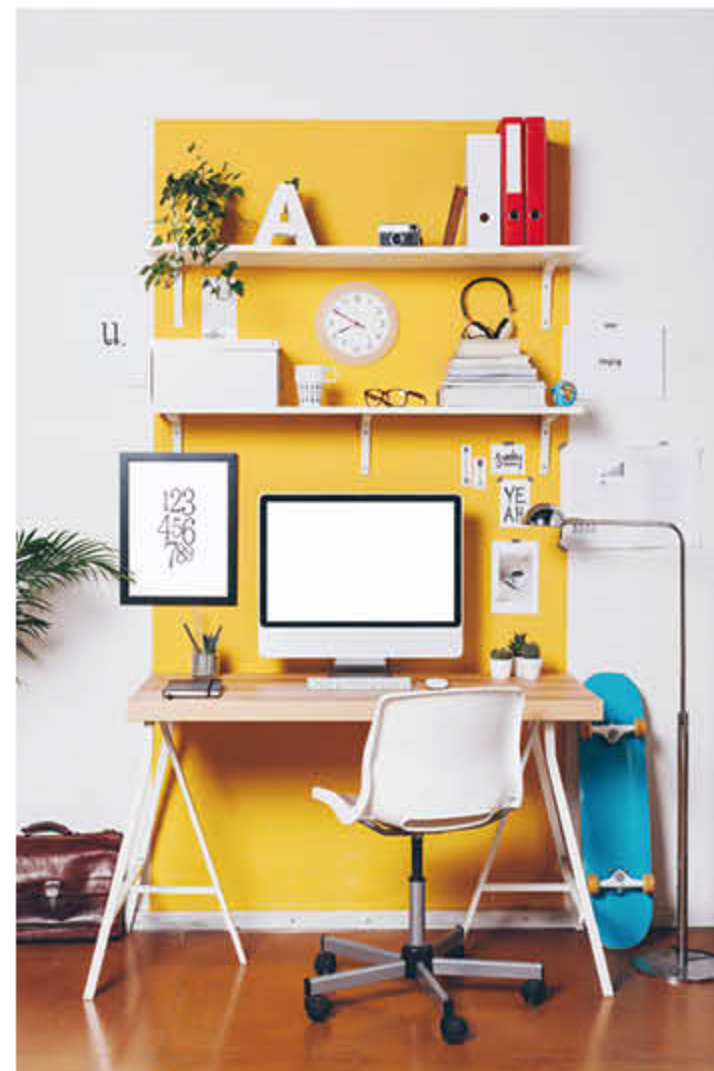
MOON STONE  
SH S 1502-B



LIGHT MOCHA BROWN  
SH S 3010-Y4CR







### 포인트 컬러 페인팅

벽면마다 다른 컬러를 페인팅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다른 면들은 화이트로 남겨두고, 한 개 벽면에만 컬러를 적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액자, 소품 등의 데커레이션으로 컬러 벽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구, 러그, 패브릭 스타일링에는 컬러 벽면과 동일한 컬러를 고르기보다는 유사한 톤의 반대색을 포인트 컬러로 선택하도록 한다. 샤르트뢰즈(Chartrreuse)로 페인팅한 공간에는 민트 컬러의 소품과 깨끗한 화이트 컬러의 조화로 상쾌한 청량감을 자아냈다. 핑크 펀치(Pink Punch)로 페인팅한 벽면에는 식물의 그린과 화병의 블루를 매치해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 다양한 아이디어로 벽면 꾸미기

벽면 전체에 일정한 톤을 페인팅하는 것만이 벽면 꾸미기의 전부는 아니다. 컬러 테이프를 이용해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원하는 형상을 그릴 수도 있고 단순하게 선으로만 데커레이션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진을 액자에 넣지 않고 테이프를 노출되게 부착해 벽을 장식하는 이들도 많다. 소품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선반은 수납겸 데커레이션을 위한 실용적 아이템이다. 컴퓨터 책상이나 책장 등 특정 공간에 컬러로 블로킹 효과를 주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컬러와 소품을 함께 사용하면 더욱 생동감 있는 벽면이 완성된다.



## 건설사들의 Identity 강화 변화하는 아파트 익스테리어 트렌드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매년 전국 아파트 재도장 현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고객이 선호하는 컬러를 'CS Color Wheel'과 'NCS Triangle'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컬러와 디자인 지원 시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페인트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411 / (주)호반건설 / 2008.06 입주 / 총 308세대 / 총 20층 / 판상형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단연 원가절감이다. 고가의 마감재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페인트로 그래픽 디자인을 적용하여 경제성과 차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브랜드마다 고유의 컬러를 운영하거나 수많은 면을 분할하고 조합해 브랜드만의 이야기를 담은 수도권 지역의 현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구성물푸레마을 호반베르디움 8단지

호반베르디움은 블루 컬러를 그라데이션으로 배색하여 풍부한 색구성을 보여주며 심플한 패턴으로 세련된 느낌을 강조한 현장이다. 세로 형태 그래픽으로 매스가 수직 방향으로 상승되어 보이는 효과를 전달하고 밝은 고명도의 무채색을 주·보조 색상으로 활용하였으며 차별하면서 중채도의 블루를 적용하여 청량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 정자동마을 태영데시앙1차

일상 속에 많이 스며들어 친숙한 피에트 몬드리안 작품을 모티브로 재도장에 알맞게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래픽이다. 따듯한 느낌의 Y 계열 컬러를 주·보조 색상으로 활용하고, YR 계열의 오렌지 옐로우 강조색 유사색상을 배색하여 역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기존 아파트 외벽컬러는 차분한 느낌의 브라운 계열을 많이 형성했지만 최근의 특징이라면 아파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던 블루와 채도가 높은 레드나 오렌지가 새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높아진 생활수준에 따라 아파트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출되는 요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166 / (주)태영 / 1993.11 입주 / 총 648세대 / 총 9개 동 / 총 25층 / 판상형





**올여름 가장 완벽한 힛트 작품 뮤지컬 <록키호러쇼>**

1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록키호러쇼>는 '8급 문화의 지존'으로 추앙받으며 1973년 영국 초연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작품. 오루피나 연출, 김성수 음악감독 등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들과 마이클 리, 고훈정 등의 출연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간 2018년 8월 3일 ~ 10월 21일  
장소 종의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초대일 2018년 8월 28일 오후 8시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체험 전시 <엘리스 인 원더랜드>**

<엘리스 인 원더랜드>는 전 세계 누구나 아는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콘셉트로 한 인터랙티브 전시(관람객의 행동이나 모션에 작품이 반응하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전시)이다. 동화 속 원더랜드를 높은 화소와 최신 мем핑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했다.

기간 ~ 2019년 3월 3일  
장소 서울시 용산전쟁기념관 제3기획전시실  
초대일 2018년 8월 17일 ~ 9월 16일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따뜻한 판타지 동화 연극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전 세계 1200만 부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인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국내 첫 연극으로 제작되었다. 한 편의 동화처럼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기묘하고 따뜻한 이야기는 깊은 공감을 자아내며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난다.

기간 2018년 8월 21일 ~ 10월 21일  
장소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  
초대일 2018년 8월 29일 오후 8시



**삼화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첨을 통해 뮤지컬 <록키호러쇼>, 전시 <엘리스 인 원더랜드>, 연극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의 티켓(1인 2장)을 선물합니다. 응모는 8월 14일까지, 당첨자 발표(개별 통보)는 8월 17일입니다.  
\* 응모방법 : <speople@samhwa.com>로 신청해주세요.

**S QUIZ**

사진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는 내용끼리 연결해보세요. (예 : A-①, B-②)  
정답을 speople@samhwa.com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다. 태양은 높고 기온이 치솟는 이맘때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기 마련. 하지만 부산 호천마을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여름은 다르다. 삼화페인트가 차열페인트 '스피쿨'로 시원한 여름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A ①



벽면 페인팅 컬러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 화사한 컬러가 좋지만 어두운 컬러도 한번쯤 시도하고 싶어진다. 단 하나의 컬러만 선택하기 어렵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보자.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는 두 톤 컬러 페인팅으로 데커레이션 팁을 제안한다.

B ②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 당첨자**

신민석 경기도 안산시 / 양승두 경기도 고양시 / 이민준 전라북도 남원시 / 이순희 경기도 수원시 / 여양우 경기도 김포시 / 이훈성 서울시 구로구 / 전희지 충청북도 청주시 / 정지한 경기도 과천시 / 정형석 서울시 용산구 / 지수원 전라남도 여수시

**지난 호 퀴즈 정답**

A - ① (인비저블 투 비저블) B - ② (Rose Blush)

**삼화엔파플 사내기자단**

연구혁신그룹	김필영 책임연구원	해외사업팀	김병준 과장
마케팅기획팀	박철희 과장	컬러디자인센터	이미리 대리
재무팀	김현정 과장	SM2네트웍스	허현아 대리



**SAMHWA**